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가상 공개 회의 연장 법안에 서명

**법안(S.50001/A.40001), 뉴욕 시민들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 회의에 가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도록 허용, 장애인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오늘 아침 일찍,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공개 회의법에 따라 공개 회의에 대한 가상 액세스를 확장하는 (S.50001/A.40001)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뉴욕주 시민들은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동안 지방 정부 회의에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국가 비상사태 당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된 이 법안은 일반인들이 회의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중에 녹화 및 기록되는 한 일반적으로 직접 개최되는 주 및 지방 정부 회의를 원격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동안 공공 회의에서의 집회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저는 주 전역의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주민들이 공개 회의에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 상식적인 법안은 뉴욕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공 회의를 볼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허용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의 정부 접근성을 높이는 특권을 확대합니다. 이 법은 뉴욕주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스타일의 정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는 Zoom과 같은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화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회의가 진행 중임을 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유권자에게 가상으로 공개 회의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12일 행정명령 202.1은 회의를 직접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뉴욕 주법의 일부를 중단하고, 공개 회의를 가상으로 개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국가 재난 비상사태가 종료되어 법률을 중단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Jeremy Coon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을 통치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률을 통해 공공 회의를 원격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 회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공공 보건 위기 동안 지역사회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계속 회복하고 있는 만큼 뉴욕 시민들이 안전을 지키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Karen McMah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재난 비상사태는 해제되었지만,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가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법률은 자치단체 및 기타 정치부서가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정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국회에서 이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 회장인 Jack Marr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티는 불행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카운티 이사회 및 기타 공공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Hochul 주지사,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및 Heastie 의장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주지사가 최근 언급했듯이, 주 전역에서 선출된 지역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임시 권한을 요청했으며, 지방 정부의 우려를 경청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건설적으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이러한 특별 회의는 주지사, 다수당 원내대표, 의장 및 주 정부의 모든 법안자와 협력하여 코로나19와 싸울 때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뉴욕주 시장 협의회(New York State Conference of Mayors, NYCOM)의 Peter A. Bayn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첫 15개월 동안 행정명령 202.1은 공공기관이 원격으로 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실험은 공중 보건과 정부 행정의 관점 모두에서 효과적이고 인기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건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 회의에 일반인들의 참석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산하 기관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최근 주 전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발생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의 프로그램 법안은 지방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참여권에 관한 법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Education Council Consortium) 공동의장인 Shino Tanikaw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의회와 지역사회교육협의회(Community Education Councils)에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고, 지난 6월 말 OML 면제가 완료된 이후 일반 대중의 참여가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감염률은 뉴욕시에서 4% 이상으로 증가했고, 많은 부모들이 직접 만나는 것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공공기관을 가상 회의로 복귀시키겠다는 호철 지사의 시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참여를 늘리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엠파이어 저스티스 센터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Kristin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공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을 경청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으며, 팬데믹이나 다른 비상사태로 인해 우리의 민주적 절차가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을 위한 주 전체의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우리는 특히 휴가, 여행 능력 또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명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호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타운 협회(Association of Towns) 실무 책임자인 Gerry Gei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률이 상승함에 따라 뉴욕 전역의 타운들은 원격으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갱신된 권한의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2022년 1월 15일까지 공공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Hochul 주지사의 공개 회의법(Open Meetings Law) 개정안은 최적의 시민의 참석과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타운 협회(Association of Towns)는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지방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협조해 주신 Hochul 지사와 입법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